

호남 기초단체까지 손 뻗는 국민의힘... '서진전략' 속도 무섭다

국회의원·단체장 전무 "내년 예산 힘 보탠다"

광주시부시장, 5·18특별법·군공항이전법 요청

국민의힘이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까지 쟁기고 나서는 등 호남끝어내기 '서진전략'의 속도가 무섭다.

그동안 국민의힘 이전의 보수정당이 광역 시·도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으나 기초자치단체까지 손길을 뻗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호남 동행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 5개 구청장과 정책협의회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정양석 당 사무총장, 정운천 당 국민통합위원장, 강대식(대구 동구을),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김기형(울산

남구을), 이달곤(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호남은 조선시대까지 전국 세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끌 글로벌 첨단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데 경제 사회 문화적 전통이 깃든 호남지역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안 계시다보니 여러가지 노력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이 자리 함께 한 호남 동행의원들이 광주를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예산지원 및 정책개발, 지역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까지 눈길을 돌리는 이유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한명도 없으니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구청장, 시장, 군수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남 24명, 광주 8명 등 지자체와 연결되는 동행 의원단을 출범시켜서 오늘 오전 광주에서, 오후에는 전남도청에 들러 지자체장들과 소통의 자리,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금까지 장벽이 높고 드리워진 동서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합하는 새로운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종호 광주시행정부시장은 앞서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외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요구한 '518 역사왜곡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 5개 구청장 정책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려고 요청했다.

국민의 힘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호남 동행국회의원-전남기

초단체장 정책협의회도 개최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없다보니 호남 동행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제대로 알기 위해 기초단체장 정책협의회 자리를 마련

했다"면서 "지역의 현안 파악을 통해 내년도 국회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이낙연 "中대사, 시진핑 연내 방한 계획 흔들림 없다 해"

싱하이밍 대사 예방...中 "미중관계 잘 유지하고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접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예방으로 주요국 4강 대사 예방을 마무리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싱하이밍 대사 예방 후 기자들

과 만나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고 싱하이밍 대사가 말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 등 여러가지 조정을 해봐야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안정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시기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방한 계획은 흔들림없다고 확인했

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중관계가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사람 모두 만족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양국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켜나가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히 코로나를 두 나라 모두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를 조기 극복하면 양국관계의 원활한 발전이 훨씬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관계 발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감사 표시했고, 대사는 앞으로 그러한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교류를 더 원활하게 하자는데 어느정도 합의를 했다"고 했다.

이날 예방에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 안민석 국제위원장,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강선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홍준표 "野, 호남 가서 표 구걸...가관" 권은희, 안철수 서울시장

"김종인, 우리 당 후보 폼하해 상처받은 출마 될 것"

출마 가능성에 "제로 아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3일 국민의 힘 지도부를 향해 "어제 우리당 최대 지지 지역인 TK에서 민주당 34%, 우리당 30%로 역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 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24개 구청장과 80%이상 지방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적인 조직선거, 관권 선거를 하게 될 것인데 반해, 민주당 2중대 정책으로 마음이 떠나버린 느슨한 우리 지지층과 와해된 서울 지역 당협 조직으로 이런 악정(惡政)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길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더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우리 당 후보들을 모두 폼하해버려 어느 후보가 선택 받더라도 상처받은 출

마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끼리 쪼개고 제외하는 속 좁은 좁쌀 정치를 어떻게 우리 지지층들이 받아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산 시장 선거도 별반 다를 바 없다"며 "태극기 세력이 가장 강한 부산에서 그 세력을 업고 정구재 주필이 출마하려고 하는데, 조선의원에 게 출마 중용도 하고 다른 중진이나 다신 의원들은 배제하면서 부산 시장 감이 없다고 질러 댔으니 부산 사람들이 뿔이 나도 단단히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 들인다고 서울 호남 분들이 보궐선거 때 우리 당으로 즉시 돌아 오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야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당을 지켜온 우리들만 또 다시 형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안철수 당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로와 '무조건'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안철수 대표는 일관되게 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야 권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고, 신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의 판단 속에 안철수 대표의 결정은 상호 소통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승산이 있으면 나가겠다, 이렇게도 들린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승산이라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과의 상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